



RÉSUMÉS ET MOTS-CLÉS EN CORÉEN

Section 1. Problématiques

국제화 시대 한국에서의 프랑스어

국문요약: 최근에 와서 세계화의 바람이 불면서 모든 부분에서 영어 학습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다. 세계화는 마치 영어화와 동일시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영어화의 열기는 심지어 태아를 위한 영어 교재의 출현까지 낳고 있다. 이러한 영어화 열풍은 소위 제2외국어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지난 몇 년 전부터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었으며 특히 프랑스어와 독일어의 경우에는 심각하게 그 숫자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수능에서 제2외국어를 응시하는 학생들의 숫자도 줄어들었는데 이상하게도 아랍어를 선택한 응시자의 숫자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수능에서의 제2외국어가 대입의 전략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비교육적인 현상인 것이다. 우리는 세계화의 바람으로 영어 열풍이 어떻게 불고 있고 제2외국어의 학습 상황이 어떻게 변천되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살펴 보았다.

핵심어 : 세계화, 영어교육, 제2외국어, 한국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프랑스어

한국의 프랑스어 교육, 그 모순과 전망

국문요약 : 10여 년 전부터 중등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프랑스어 교육은 퇴보단계로 접어들었다. 세계화라는 경제적 시련에 직면하여 한국은 채산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유럽의 모든 언어를 희생시키고 대신에 영어 교육을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학생들이 장래의 직업활동에 적합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부전공 선택이라는 사실로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프랑스어의 위기는 전통적인 순수학문의 공급자로서의 대학이 새로운 모습으로 빠르게 변신하고 있는 대학의 위기와도 맞물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지닌 평가집착증적 열기는 모순된 상황을 전개하고 있다. 프랑스어를 배우는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요구하는 외국어 능력인증이 외국어 교육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교양어로서 가르치던 프랑스어에 지금 직업적 목표라는 새로운 임무가 부여되었으며, 세계화에 발맞추기로 합의된 본 이 나라에서 아프리카 불어권이라는 새로운 경제영역은 프랑스어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과거의 모습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려갈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할 때다.

핵심어 : 아프리카 불어권, 한국, 교과 과정, 부전공, 프랑스어 교육

한국 프랑스어 교육 :
프랑스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교수 학습 방법

국문요약 : 현재 한국내의 프랑스어 교육은 학습자수의 감소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현 상황은 한국의 교육정책과 기존의 교수-학습 방법이 프랑스어 학습자들의 바람에 상응하지 못해 초래된 것으로 생각된다. 세계화가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 프랑스어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한국의 사회 문화 실정에 적합한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부여와 말하기 능력향상을 위해 제작한 모바일 학습 방법을 소개하고, 한국의 모 대학 학생들과 실시한 실험 결과를 살펴본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또 다른 교수-학습 방법 개발의 활성화와 더불어 더 많은 학문적 접근과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핵심어 : 프랑스어 제 2외국어, 모바일 (이동식) 학습, 비실시간 말하기

새로운 방향모색을 위한 한국의 프랑스어 교육 연구

국문요약 : 이 연구는 한국의 불어교육상황에 관한 선행연구(2000년)에서 조명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다. 2000년을 전후하여 시행된 교육정책의 변화로 한국의 불어교육은 위기상황을 맞게 되었고 이의 타개를 위한 많은 시도와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왔다. 불어학습자의 현격한 감소에 직면하여 교수자들은 교육내용의 재조직과 새로운 내용의 개발 등으로 불어교육의 질적인 개선을 추구하였으며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극복되었다고 할 수 없는 현 시점에서 연구자는 한국 불어교육의 보다 나은 앞날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첫째, 지난 10여 년 간 불어교육의 중심 화두로 떠올라 각광을 받은 ‘문화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대하여 보다 분명하게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습자의 다양한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여 학부교육은 물론 특히 석사과정에서 전공 영역을 다변화시켜야 한다. 셋째, 유학 등의 이유로 프랑스에 체류하는 학생들의 전공영역을 고려하여 전문불어 영역의 교육이 더 확대 개발되어야 한다.

핵심어 : 불어교육, 교육정책, 불문화 교육, 전문불어, 전공영역 다변화

링구아프랑카로서의 영어, 통역사들의 공포의 대상

국문요약 : 본 논문은 국제교류에서 영어만능주의의 허상을 밝히고 국내 한/불 언어 조합의 상황에 대해 통역사의 입장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통역 부스는 언어교류의 현장에 위치하여, 영어만능주의를 가장 용이하게 관찰할 수 있는 장소이다. 많은 사람들은 영어로 소통하면 더 많은 화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발표자는 한정된 언어능력에 발표내용을 맞추어야 하므로, 내용이 부실할 수 밖에 없으며, 청중 역시 부족한 내용을 들으며 불만스럽다. 특히 전문 통역사들이 언어별로 부스에 있는데도 부족한 영어로 소통을 고집하는 연사는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통역사의 현장경험을 통해 이 상황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핵심어 : 영어우위, 언어간의 위계질서, 동시통역, 공식언어, 불평등한 교류

사물이 주체가 될 수 있는가 ?

국문요약 : 사물에 대한 연구는 저마다의 역사가 있고 대륙간 대립이 꽤 견고하다. 서구사회에서 사물, 수단, 상품이 체계적으로 의심받는 데 반해, 한국사회에서 이것은 현대를 구성하는 요소로 이내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만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물을 표현하지 않는 우리가 이른바 현대화 혹은 세계화의 아우라를 차지하고 이야기해 볼 수는 없는 것일까? 세계적이고 현대적인 것들, 특히 최신 기술 보유국으로 손꼽히는 지금의 한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두에 자문하기 시작한 것처럼 보인다.

핵심어 : 소시오그램, 상품, 가치, 표현

Section 2. Études de cas

한국의 프랑스어 학습자들의 발음 오류 및 발음지도 방안

국문요약 : 한국학생들은 프랑스어를 배울 때 대부분이 예를 들면 [y] 를 [wi]나 [i] 로, [ã] 을 [an] 으로, [b] 나 [v] 를 [p]로, [R] 을 [l] 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두 언어 체계의 큰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발음오류의 원인을 가려내기 위해서 먼저 두 언어의 자음 체계와 모음 체계를 비교하였다. 이 발음의 오류를 교정하는 방편의 일환으로 먼저 각 음소들의 정확한 조음방법을 설명하고, 다음에는 음운대립을 이루는 최소변별쌍을 선정하여 발음하기 쉬운 환경에서부터 점차 어려운 환경으로 진행하면서 어조-음조 방법의 원리를 적용하여 훈련하는 방법을 예시문과 함께 제시하였다.

핵심어 : 발음, 한국어, 음성의, 조음의, 음운대립, 어조-음조 방법.

학대자들은 한국사회의 희생양인가? - 이창동의 영화 “박하사탕”을 중심으로 -

국문요약 : 영화 ‘박하사탕’에서 이창동 감독은 한국의 80년대 독재 시절, 그의 삶의 기질을 버리지 못하고, 스스로 그가 살아 온 사회 안에서 억압의 길을 선택한 한 남자 주인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감독은 주인공이 받은 명령을 결코 거역하지 않고 언제나 권력의 충실한 하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의 인생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강하게 부각시킨다. 90년대 민주화 사회에서 그는 사회적으로 점차 소외되어가면서 스스로가 모든 것들로부터 달아가며 후퇴해 갈까? 학대자들은 다른 독재자들처럼 죄책감을 갖는가? 한국사회는 그를 잊고 현대 역사에서 이 끔찍한 측면을 삭제해버리려는 것일까? 이 논문에서는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할 것이다.

핵심어 : 학대자, 독재, 한국사회, 시간, 피해자

한국에서의 지중해 연구 위상 지중해지역원(부산) 사례 연구

국문요약 : 부산 소재 지중해 연구를 위한 기관인 지중해지역원(IMS)의 프로젝트는 인문 한국 지원사업의 틀 속에서 한국 연구재단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지중해지역원은 연구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 활동을 수행해왔다. 연구 활동들은 지중해 문화의 특성인 복합성 안에서 인문사회과학과 언어과학분야 연구 성과물을 통합하고 있다. 또한 지중해지역에서의 상호문화 정보의 교류에 주목하며 미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제도적인 틀 속에서 연구 아젠다와 연구 활동의 내용을 소개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에서의 최초 지중해 연구기관으로서 지중해지역원이 걸어온 길을 살펴 볼 것이다. 끝으로 지중해지역원은 국내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중해 지역밖에서의 지중해학 연구를 출범시키고 한국의 연구를 외부로 확산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 지중해지역원, 지중해학 연구, 대학-연구 기관과의 파트너십, 인문한국 지원사업

한국의 음식문화 :

프랑스 요리전통과 프랑스어는 보급 매개체로 사용될 수 있는가?

국문요약 : 외국에서는 아직도 진정한 한국 음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식도락은 전 세계의 미식가들에게 소개되어야 할 만큼의 독창성, 다양성과 맛을 보여준다. 이러한 견해에서 이 논문의 목적은 이 음식의 특별성을 밝히고 어떻게 프랑스어로 이들을 소개하고 설명할 것인지와 프랑스 미식가들에게 친근한 전통 요리의 문맥과 수세기 전부터 의심할 여지가 없는 세계적인 인식에 대한 혜택을 받는 전문가들과 프랑스 식도락 속에서 이들에게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에 있다. 한국의 요리문화는 오랜 역사의 흐름과 세대에서 세대를 거치면서 전해졌던 신앙과 미신 속에서 형성되었다. 한국 음식은 신성하고 자연의 맛을 간직하는데 어떤 음식들은 음식과 의술은 같은 근원을 가지고 있다는 이론 하에 약식동원(藥食同源)의 원칙에 따른 보양과 의료적 효과를 지녔다.

핵심어 : 요리, 미식법, 한식, 국제화, 김치, 고추, 쌀밥, 맛, 조리법.

한국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표상들과 영어 제일주의 :

한국 사회의 '세계화'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문요약 : 이 연구는 '세계화'를 주창하는 한국 정부의 구호와와는 모순되게 점점 영어의 비중이 커지고 영어 일변도로 흘러가는 교육 현장을 포함한 한국 사회의 모습을 한국인들이 품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표상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실, 한국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표상은 '문화의 근원'과 '미개인'이라는 지극히 이분법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데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인들이 외국과 맺어 온 관계의 성격을 통해 형성되고 고착된 것이다. 우선, '문화의 근원'이라는 표상은 유구한 역사를 통해 세계의 중심임을 자처하던 중국과의 관계에서 유래된 것으로 중국으로부터 한국에 수많은 문화가 전래되어 온 것에 기인하며 이 표상은 해방 이후 남한 사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근대 서구 물질문명의 대명사로 간주되던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재확인된다. 한편, '미개인'이라는 표상은 오랫동안 한국인들이 문화적으로 열등했던 일본에 문화를 전달했던 역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선의 문호 개방 이전의 서양 세계에 대한 인식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우리는 한국인들의 이러한 이분법적인 표상이 결국은 한국을 오늘날과 같은 영어 편향적인 사회로 이끌었다고 본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한국 사회의 '세계화'에 엄청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진정한 '세계화'를 위해서는 외국인에 대한 이러한 이분법적인 표상에서 벗어나 문화의 다양성과 그 가치의 동등함을 인정하는 사고와 인식의 유연성과 전환이 요구된다.

핵심어 : 표상, 외국인, 영어, 외국어, 문화의 근원, 미개인, 세계화

한국의 다문화교육과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을 위한 교육지원방안 모색

국문요약 :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우선 이들에 대한 체계적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아직 동반·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없으므로,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통계 자료 파악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동반·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거점학교 지정 및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거점학교 운영을 통해 편의를 제공하고,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에게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우선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무학년제'나 체계화된 이중언어교육, 예·체능통합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을 보완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요에 따라 특성화교육의 일환으로 직업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동반·중도입국 자녀의 학부모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동반·중도입국 자녀는 가정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정서적 불안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우선 안정적으로 가정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동반·중도입국자녀 부모에 대한 교육 및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마지막으로 동반·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요청된다. 아직 이들이 다니는 많은 학교가 미인가 대안학교인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상급학교 진학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이 요구된다.

핵심어 : 한국의 다문화교육, 한국의 다문화교육정책, 동반·중도입국 자녀의 문제

한국 고등학생들의 프랑스어 관사사용 분석

국문요약 : 본 연구는 한국인 고등학교 학습자들의 프랑스어 관사 사용의 오류를 분석한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고등학교 학습자들이 관사를 학습하는 데에 구체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프랑스어 관사교육을 위한 효율적인 교수방안을 모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목적을 위해 본 논문은 프랑스어 관사용법을 크게 6개 유형으로 나누고, 또 이를 더욱 세분하여 23개 의미론적 환경을 제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각 유형과 환경의 오류율을 통해 한국인 학습자의 관사학습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또한 엄정한 규칙설명, 다양한 텍스트 속에서의 관사사용 제시, 관사용법 이해에 대한 학습자의 구두설명 등과 같은 관사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 프랑스어 관사, 한국 학습자, 오류분석, 습득, 교수방안

한양대학교와 파리 8대학 간 교류협력 프로그램 : 문제점 및 전망

국문요약 : 본 고에서는 3년 전 한양대학교와 파리 8대학이 국제 교류협정을 맺은 이후, 대학 간 교류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해 온 한양대학교 프랑스 언어문화학과의 현지 학기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동시에 매년 파리 8대학에서 학생들이 한 학기 강의를 수강한 후 도출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문제점들과 성과들을 성찰해보고 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몇 가지 특수한 목적 하에 진행된 상호협력을 위한 이 교류 프로그램은 활력을 주는 시너지 효과를 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두 대학 간에 긴밀한 국제적 협력관계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언어교육과 언어학습은 특정 상 국경을 넘어 서로 자연스런 접촉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매우 적절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과를 거두는 교류 차원에서 두 대학 학생들에게 각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긴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의 두 중심 사이에서 급속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특히 프랑스 언어와 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분야에서 장차 활동할 수 있는 한국 학생들을 양성해낼 수 있으리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상호협력 프로그램이라 평가된다.

핵심어 : 교류, 프로그램, 연수, 학습, 능력

한국과 프랑스 대학 간 교류협력 프로그램 :
언어 학습의 양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

국문요약 : 한국과 프랑스 간 학술교류와 고등교육에서 프랑스어의 위상은 우리로 하여금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교육 범주 내에서 2007년 시작된 두 개 대학 간 교류협력 프로그램에 대해 고찰해보게끔 한다. 본 연구는 먼저 교류협력 프로그램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살펴보고, 30명의 대학교 3학년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Paris 8대학에 갔던 학습자 그룹과 같은 기간 한국 한양대학교에서 수학한 학습자 그룹 — 이들의 생산활동을 비교관찰 한다. 다음으로 교수법적이고 문화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의 생산활동에 있어서 언어적 자원과 의사소통 자원의 의미분석으로 이어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행위적 관점에서 두 대학 간 교류협력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의사소통 능력, 언어수행)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데에 있다.

핵심어 : 이동, 교류협력 프로그램, 유럽공통참조기준, 의사소통능력, 학습자 프로파일